

출제위원이 알려주는 합격답안 쓰는 법

생각과 글 논술

기본편/개념·논제 분석·제시문 분석·유형별 글쓰기

판권 삽입 요망

생각과 글 논술

기본편/개념·논제 분석·제시문 분석·유형별 글쓰기

본 교재는 논술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입논술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이 과연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보완을 해야 하는지 논술 선생님의 첨삭과 조언을 듣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교재로 공부를 하다가 답안의 첨삭과 조언이 필요하다면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논술 첨삭 강의'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해와 글쓰기의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결코 원하는 대학에 논술로 입학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화려한 기술도 가장 기본이 되는 단순한 동작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책으로 3개월 15회만 공부해서 논술의 기본을 다지세요. 그러면 어느 대학 논술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본 교재를 마친 후에는 지원 대학 논술 안내서를 참고해서 기출문제를 한 세트씩 3년 치만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대입 논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납니다. 논술에 관한 모든 질문은 카페를 통해서 해주세요. 환영합니다.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

<http://cafe.naver.com/kangvio>

'생각과 글 국어·논술 연구원'

강비오 脫空山人 010-3 8 -5 06

이 책을 만든 이를 소개합니다. 이 책을 만든 이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현 언론홍보영상학부)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언론계에 종사하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현재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일산에서 학생들에게 바른 글쓰기, 논술과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지난 10년간의 대입 논술 교육과 출제 경험을 집약하여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수험생들이 혼자 공부하기 쉽고 선생님들이 논술 지도하는데 편리하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문의는 생각과 글 국어 논술 연구원,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 로 해 주십시오

대학입시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입시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출제 교수들이 그 대학의 논술 시험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들은 거의 매년 '논술 안내서'나 모의,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 그해 입시에서 어떤 스타일의 논술 문제를 낼 것이고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대학마다 여러분들에게서 원하는 답안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의 교수들마다 논술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고 그 대학에서 논술을 통해 선발하려는 신입생들의 성향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대학 논술시험에서도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1. 시험 시간에 주어진 제시문을 잘 이해할 것,
2. 논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3. 제시문에 근거해서 잘 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쓴 것이 잘 쓴 답안이고 어떻게 써야 합격을 시켜준다는 것은 대학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쓴 답안의 기준은 각 대학의 논술 안내서에서 그 대학 교수들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그 대학의 교수들이 원하는 고유의 답안을 써야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논술 교육 10년간의 결론입니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논술 안내서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대입 논술 교육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의 논술 안내서에는 교수들이 자기 대학의 논술문제를 해설하기 전에 요구하는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대로

1. 논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야 한다는 것과
2. 제시문을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시문에 근거해서 답안을 쓸 것과
3. 요약하는 글쓰기, 분석, 설명하는 글쓰기, 비교하는 글쓰기, 논술하는 글쓰기 등 논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가 어떻게 다른지 정도는 사전에 알고 지원하는 대학에 맞는 답안을 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대학의 기출 문제 해설을 하기 전에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기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이 교재입니다. 즉, 논술 시험을 보는 30개 남짓 대학의 논술 안내서와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이 되는 내용만 간추린 것이 본 교재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교재로 기본 과정을 마친 다음에 본인의 실력에 따라 지원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이 충족되면 그 대학의 논술 안내서를 기반으로 모의와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마무리 학습을 하고 최저 등급이 충족 안 되면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의 논술 안내서를 잘 읽어 보고 경향만 파악하고 가도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성과를 거둘 것을 기원합니다.

2013.

구성과 특징

본책(3부 14강과 부록)과 별책(연습문제 해설과 예시답안) 2권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책은 3부 14강으로

- 1부는 논술에 대한 개념 파악과 논제 분석입니다.
 - 1~2강 '대입 논술시험이란 어떤 시험인가'와 '논술 공부하는 방법'
 - 3강 '논제 분석' 요령과 실전 연습입니다.
- 2부는 제시문을 읽는 요령에 관한 강의와 연습입니다.
 - 4강~8강까지 다양한 유형의 제시문 읽기와 정확한 의미의 단문 쓰기 연습입니다.
- 3부는 다양한 논제 유형에 따른 글쓰기 연습입니다.
 - 9강의 '요약하기'부터 14강의 '논술하시오' 쓰는 요령까지 입니다.

부록으로

'도표 해석하는 법' '논리, 수리 논술 해결하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들만 공부하면 됩니다.

본책의 내용 구성은 크게 1)강의와 2)연습으로 되어있습니다.

1)강의는 논술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해당 내용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10년간 논술 교육을 해 오면서 해당 내용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점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합격 답안 작성의 요령을 가르쳐 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연습은 강의와 해설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실제 대학의 기출 문제에 적용하여 여러분들이 답안을 써보고 쓴 다음에 해설을 보고 바로 썼는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 교재의 언어 논술 부분은 전체적으로 14~16회 정도의 공부 차수에 마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 1회 기준 3~4개월 정도) 4강에서 8강까지의 제시문 분석과 단문 쓰기 연습은 두 개의 강의를 한 번에 하는 대신 유형별 글쓰기는 매 강의마다 학습 진도에 따라 2~3 번으로 나누어서 해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양도 많습니다. 부록의 도표 해석과 논리 논술은 별도로 해당 대학 지원 학생만 공부하면 됩니다.

차 례

본책

1부

- 01강 논술시험이란 어떤 시험인가 05
- 02강 대입 논술 공부하는 방법 14
- 03강 논제 분석을 통한 답안의 개요 짜기 23

2부

- 04강~08강 제시문 분석과 단문 쓰기 연습 52

3부

- 09강 요약하는 글쓰기 96
- 10강 설명, 분석하는 글쓰기 125
- 11강 비교하는 글쓰기 149
- 12강 비판하는 글쓰기 171
- 13강 대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쓰기 181
- 14강 논술하는 글쓰기 189

부록/도표 해석과 논리 논술 209

별책

연습문제 해설 및 예시 답안

1부

공부 방법

1부는 '대입논술 시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잡는 과정과 논제분석을 통해 답안의 개요를 짜는 과정입니다. 1강과 2강은 잘 읽어보면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왜 그 시험을 보는지'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평가하기 위해 문제를 만드는지'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할 경우 서너 번 정독해서 '대학에서 이래서 논술 시험을 보는구나.'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이용할 경우 첫 시간에 선생님이 먼저 읽고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학생들과 같이 읽어 나가면서 중요 내용을 간추려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반드시 한번 읽도록 숙제를 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2강의 마지막 부분은 꼭 같이 읽도록 하십시오.

01강

대입 논술고사란 이런 시험이다

대입 논술고사란 한마디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를 이해하고 교수가 내주는 과제에 수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글 읽기 능력(전공서적에 대한 내용 파악, 요약, 문제 분석 능력)과
글 쓰기 능력(레포트 작성을 위한 표현, 구성, 근거 설정, 창의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와 관련돼서 할 일이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 고사 기간에 교수가 내주는 과제를 가지고 레포트를 써서 내는 일이다. 즉, 대학교육의 결과는 매 학기마다 보고서, 레포트를 작성해서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레포트의 수준에 따라 학점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수들은 이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대학생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생각한다. 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바로 대입 논술 시험이다. 이런 능력을 동등한 자격을 가진 수험생들이 일정 장소에 모여 정해진 시간 안에 해결하여 우열을 가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대입 논술 시험이다.

대학에 들어와 전공 서적을 읽고 얼마나 바로 이해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그

에 걸맞는 제시문을 주고, 읽은 내용을 교수의 지시에 따라 얼마나 바로 수행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논제를 주고, 우리 글로 바로 표현 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정해진 분량만큼 글을 쓰라고 시키는 것이다.

즉, 정리하면 대입 논술이란

1. 논제를 통해 주어진 과제를
2. 제시문의 논리적 분석 과정을 통하여 해결하고
3. 그 결과를 언어로 서술하는 글쓰기이다.

대학교수들은 이런 능력이 수험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의 전공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입 논술 고사란 어떤 성격의 시험인가’하는 대학입시 논술의 기본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다양한 교수의 지시(논제)에 따른 기본적인 글쓰기를 익힌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 할 대학의 수준과 평가 방향을 알려주는 모의와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대학의 ‘실제 채점 기준’에 맞게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모든 대학의 언어 논술 문제는 ‘제시해준 글이나 자료를 잘 읽고 이해한 후 주제를 찾아(아니면 논제를 통해 알려주는 주제에 맞추어) 제시문들의 주장에 대해 요약, 분석, 비교한 다음 그 주제에 대한 견해를 쓰라’는 구조가 기본이다. 즉, ‘대학이 제시한 글을 독해, 요약, 분석하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 제시문을 통해 정리한 ‘자신의 견해’를 쓰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요즘은 대학들이 채점의 편의를 위해 문제를 둘로 나누어 요약, 분석하는 문제와 의견을 논하는 문제로 나누어 내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언어 논술 문제에도 각 대학들의 특성에 따라 문제 상황을 주고 해결 방안을 서술하라고 하거나 논리 논술 문제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테스트하거나 수리 논술 문제를 통해 기본적인 수학적 풀이 능력을 테스트 하는 문제를 병행해서 출제하고 있다.

결국은 현재의 대입 언어 논술 문제란 제시문에 대한 ‘요약과 분석 + 견해쓰기’의 구조이다. 이 논제를 문제를 두개로 나누어 내거나 아니면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 긴 글을 쓰게 하는 형식이다.

먼저 논술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실제 문제를 푸는 순서대로 공부해 보자. 가능한 아무 대학이나 최근의 기출 시험 문제지를 하나 앞에 놓고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이다.

모든 대학의 논술 문제는

①유의 사항 ②논제(문제) ③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유의 사항

유의사항은 그야말로 시험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것으로 사용해야 할 필기도구, 논제별 답안의 글자수, 제목을 쓰지 말 것, 개인 식별이 가능한 부호를 표시하지 말 것 등 다양한 그러나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이다. 소홀히 하거나 무시 할 경우 답안이 채점도 안 되고 폐기가 되니 반드시 문제지를 받으면 먼저 숙지해야한다.

2. 논제(문제)

논제는 시험이면 당연히 주어지는 단순한 요구 사항이 아니다. 논술의 첫 단추는 논제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답안지를 받으면 일단 차분하게 논제부터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 ‘논제’는 우리가 써야 할 ‘답안’의 나침반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은 논제의 요구와 일치되는 ‘예시 답안지’를 채점용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논술 시험 답안의 구성은 일단 ‘논제가 요구하고 있는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채점의 편의를 위해서도 대학은 수험생에게 독자적인, 독특하고 참신한 구성보다는 ‘논제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순서대로의 답변’을 원한다.

수험생들을 보면, 글을 다 쓰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글이 되거나, 문제가 정작 요구하는 내용은 빼어놓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모두 논제의 지시에 충실한 글쓰기가 아니라 논술을 ‘일반적인 작문’으로 생각하고 막연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요구사항별로 번호를 매기고, 답안의 작성 순서도 이 순서에 따라 분량도 나눠놓고 글쓰기에 들어가야 한다. (논제 분석을 통한 답안의 구성 방법(개요 짜기)는 3강의 논제분석 요령과 연습에서 배운다.)

논제의 중요성에 대해 서강대학교의 논술 출제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논술 채점 기준은 명료하다. 우선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제위원들은 논제에서 요구 사항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제시문을 요약·비교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실제로 요약, 비교, 자신의 견해 세 가지 모두를 적어야 해요. '요약 25%, 비교 30%, 자신의 견해 45%' 하는 식으로 요구 사항별 배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논제를 잘 이해하면 답안을 몇 단락으로 구성해야 할지도 저절로 알 수 있어요. 논제의 요구 사항이 세 개라면 세 단락으로 구성하는 식이죠.”

3. 제시문

논제 분석을 통해 대학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한 후에는 제시문을 봐야 한다. 모든 문제가 거의 ‘제시문을 읽고’ 답안을 쓸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출제 과정에서 선별한 글을 학생이 어느 정도나 읽고 이해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자체를 대학에서 공부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제시문을 잘못 이해하면 한마디로 그 논술 문제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제시문만 바로 이해하면 오히려 글쓰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고등학생 수준의 어휘와 문장에 맞춰 써버리면 된다. 그러나 제시문 분석이 잘못되면 글을 잘 쓰고 못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요구하는 ‘정답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쓰는 최고의 훈련 방법이다. 기출문제의 제시문들을 읽어보고 주제를 요약한 다음에 스스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실력이 늘 것이다.

제시문의 출처나 종류는 인문, 사회과학 고전뿐만 아니라 시, 소설, 신문 기사, 그림, 도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나 기본적인 성격은 글로 제시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단지 시, 소설, 신문 기사 등을 얼마나 적절하게 주어진 주제에 따라 내용을 요약, 해설 하느냐가 문제가 될 뿐이다. 대학은 제시문의 분석에서 1차로 학생들을 거르고, 높은 점수를 줄 수험생들은 자신의 견해를 쓰는 부분에서 주로 선별한다. 견해는 대체로 ‘사례를 쓰게 하거나 / 문제의 원인을 분석시키거나 / 극복 방안을 묻거나 / 비판을 시키거나’ 하는 방식인데 어떤 대학들은 그냥 간단하게 ‘자신의 견해를 논술 하시오’라고 요구한다.

중간 생략.....

02강

대입 논술 공부하는 방법

대입 논술고사에서 요구하는 논술문은 제재도 정해져 있고, 분량과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논술문의 작성에서 소홀히 넘기기 쉬운 몇 가지 문제를 먼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고지 작성법에 맞게 답안을 깨끗이 쓰도록 해야 한다. 누가 원고를 읽게 되더라도, 지저분한 원고, 원칙을 무시한 원고보다는 정성을 다하여 성의껏 깨끗하게 씌어진 글에 호감이 가게 마련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도 글쓴이에게는 손해가 될 것이다.

(2) 분량을 지시대로 지켜야 한다. 논술고사에서 정해진 분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분량이 넘치는 것은 모두 감점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의 글을 써야 하므로, 글을 쓰는 속도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원고지 한 장을 쓰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략이라도 측정해 두면, 시간 배분 때문에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3) 문장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써야 한다. 어법이 틀리거나 논지가 분명하지 못한 글

일수록 문장이 산만하고 길어진다. 문장을 종결할 때에도 '생각된다', '느껴진다', '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막연한 표현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접속어는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한자를 같이 쓸 필요도 없으며, 한자를 꼭 쓰고자 한다면 획이 틀리지 않도록 정자로 써야 한다.

(4) 단락(문단) 조정을 잘 해야 한다. 단락 사이의 긴밀성과 통일성이 잘 지켜져야 좋은 글이 된다.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내용을 단락의 구분 없이 한 덩어리의 글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속칭 '통글'이라고 하는, 단락 구분이 전혀 안 된 글은 서울대학교 논술고사에서는 0점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채점 기준

각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논술 채점 기준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문제 파악 능력(주제, 출제 의도 파악 능력)

먼저 '문제 파악 능력'에서는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답안에 설정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게 된다. 즉, 질문에 대한 논술이 아니고 그저 원고지만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 논제의 요구와 무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제재의 언급이 분명한가를 판별한다.

2) 구성의 논리성

'구성의 논리성'에서는 한 편의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글의 기본 골격을 세우면서 무리 없이 논리를 전개해야 하고, 논리 전개에 따라 글의 단락을 적절히 나누어야 한다.

3) 내용의 정확성

'내용의 정확성'에서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과 내용을 충실하면서도 정확하게 서술하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게 된다.

4) 표현의 정확성

'표현의 정확성'에서는 원고지 사용법이나 정서법과 같은 글쓰기 형식과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정확하게 서술하는 표현력, 그리고 풍부한 어휘 구사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게 된다. 원고지 사용법, 맞춤법, 구두점 사용법 등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중간생략.....

평소 논술 공부 하면서 명심할 사항들

1. 논술의 정답은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답안이다

논술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논술은 시험이다. 대학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상위권 대학이 논술 전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논술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학생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논술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학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기준이 바로 채점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우수함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다.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글을 쓰면 합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술은 답 없는 글쓰기가 아니다. 물론 객관식 문제처럼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글을 쓴다고 해도 채점의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오답이 되는 것이다.

2. 자신의 생각을 쓰지 말고 논제가 요구하는 것을 써라

논술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상외로 많은 학생들이 문제의 요구사항과는 무관한 글을 쓴다고 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학생들이 제시문을 무시하고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는 글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생각을 깊게 전개하는 힘도 부족하다 보니 배경지식에 의존해서 글을 쓴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는 척'을 하지만 이런 글은 이미 오답의 길로 접어든 글이다. 대학은 절대로 고등학교 교과 수준을 뛰어넘는 배경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제별로 배경지식을 익히고 각각의 주제에 관한 모범답안을 암기한 후 비슷한 주제가 나오면 무조건 외운 대로 쓰는 답안이야말로 최악의 답안이 된다.

3. 창의적인 내용보다 심화 된, 정확하고 논리적인 글을 써라

논술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바로 창의성이다. 주요 대학이 논술 채점 기준으로 창의성을 강조하다 보니 학생들은 뭔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글을 쓰지 못하면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심화 된 생각과 논리다. 다른 학생들과 차별되는 독창적인 글

을 쓰지 못한다고 해도 깊이 있고 논리적으로만 쓰면 합격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해서 아무리 독창적인 글을 쓴다고 해도 정확하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논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절대 합격할 수 없다.

4. 획일적인 형식으로 쓰지 말고 논제에서 요구하는 순서대로 써라

학생들은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 결론에서는 요약 재강조를 해야 한다는 식의 획일화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 역시 오해다. 논술은 시험 문제다. 이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문제 제기를 통해 문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억지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글이 어색해진다. 예를 들어 '(가)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을 비판하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장황하게 서론을 쓰면서 '(가)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관점을 비판할 수 있다'고 한 후 본론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논제의 요구사항을 어긴 것이다. 문제에서는 '(가)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관점이 비판 받을 수 있는지 논술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는 자연스럽게 쓰면 된다. 가능한 되도록이면 논지를 먼저 쓰고 논거를 뒤에 쓰는 두괄식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두괄식 글은 채점자가 논지를 본 후 그 논지가 어떻게 논증되어 가는지를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즉 채점자를 편하게 해주는 글이다.

5. 멋있는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의미가 정확한 단문을 써라

논술이 글쓰기이다 보니 학생들은 표현에 많은 신경을 쓴다. 하지만 대학에서 수험생에게 기대하는 것은 뛰어난 문장력이 아니다. 대학에서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문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지 여부이다. 표현이 결정적인 평가 요소가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로 비문은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문은 문법에 맞지 않는 글이다. 대학에서는 비문에 대해서는 꽤 엄한 잣대를 들이댄다. 비문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우리말 문법에 맞게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다. 문법은 글을 구성하는 논리다. 글을 구성하는 논리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이상의 논리는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논술을 작성할 때 되도록 단문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독서를 하기 보다는 지원 대학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라

시험을 가까이 둔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논술을 대비하는 방법은 주제별 교양서적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려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다. 기본적인 논술 공부를 마쳤으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최소 3년치 기출문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기출문제 풀자.

시험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받고 명심해야 할 사항들

1. 유의 사항을 확인한 후 먼저 논제부터 꼼꼼하게 분석하자

논제는 답안 작성의 틀과 조건을 안내하고 제시문 분석의 방식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논제를 분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확인할 것. “제시문 (나)와 (다)의 주장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의 그림을 해석하시오.”라는 논제를 보자. 주된 요구 사항은 제시문 (라)의 그림을 해석하라는 것이다. “제시문 (라)의 그림을”은 ‘무엇’에 해당하고 “해석하고”는 ‘어떻게’에 해당한다. 이때 ‘어떻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제에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관해 다양한 지시어들이 등장한다. 지시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대충 이해하면 바로 출제 의도에서 벗어난 답안을 작성하게 된다.

둘째, 주어진 조건을 확인할 것. 앞의 기출 논제에서 “제시문 (나)와 (다)의 주장에 근거하여”는 조건이다. 제시문 (라)의 그림을 해석할 때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안 주겠다는 것이다. 조건을 무시하면 엉뚱한 글이 된다.

셋째, 제시문을 분석하는 조건을 확인할 것. 제시문의 드러난 주제만 요약해서는 출제 의도에 맞는 답을 쓸 수 없다. 논제에서 요구하는 주제와 지시 사항에 맞추어 제시문의 내용을 맞추어 재구성해야 한다.

넷째, 논제를 몇 개의 마디로 나누어 답안 전체의 잠정적인 틀을 짤 것. 하나의 논제에 1가지 요구 사항만 담겨 있을 때도 있지만, 2가지 이상의 요구 사항이 담겨 있을 때가 많다. 그에 맞추어 답안의 잠정적인 개요를 짜야 한다. 2가지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

는 2문단으로, 3가지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는 3문단으로 답안 작성의 틀을 짜는 게 원칙이다.

2. 제시문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라

배경 지식에 의존해서 답안을 쓰려고 덤비는 수험생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배경 지식을 떠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제시문부터 제대로 읽어야 한다. 답안에 들어갈 것 할 중요한 글감은 제시문 속에 있다.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답안 작성의 틀을 짤 수

중간생략.....

03강

논제 분석을 통한 답안의 개요 짜기

대입 논술은 결국 주어진 논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시문을 잘 ‘읽고’ 분석한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나의 판단을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일 먼저 논술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논제 분석 방법을 공부해 보자.

명심하자. 논제와 제시문의 바른 이해가 논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논제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논제가 곧 채점 기준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논제를 기초로 논술고사의 예상 답안지를 미리 만들고, 수험생들도 그 수준의 글을 써 주기를 기대하며, 그 수준에 미치는 답안지 순서대로 점수를 준다. 대학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안의 방향을 논제로 제시한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은 논제에서 교수가 ‘반드시 쓰라고 했던 내용들’은 정작 쓰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쓰거나, 그 비슷한 내용만 쓰는 경우가 의외로 너무나 많다. 시험장에서 논제만 잘 보고 이해해도 감점당하고 탈락당할 위험이 반 이상 줄어 든다.

논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요구사항’에 밑줄을 긋고 번호를 매기고,

번호가 매겨진 요구 사항은 반드시 답안지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논제만 잘 분석해도 써야할 논술답안의 개요가 만들어진다. 논제가 요구하는 대로만 작성하면 대학이 요구하는 모범 답안이 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논제분석을 하는 이유는

- 1, 대학에서 쓰라고 하는 요소(채점 기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찾기 위한 것이며
2. 제시문을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될지 알기 위한 것이고
- 3, 글 전체를 균형 있게 쓰기 위함이다(즉 문단 나누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연습을 한 번 해보자

논제 분석 예시 1

제시문 (1)과 (2)의 관점을 비교하고, 둘 중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여 제시문 (3)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50점) (600자 +- 50자) 고려대 2012학년도 수시

해설

먼저 출제 교수의 요구사항을 찾아봅시다.

크게 보아 1. 비교하고 2. 자신의 견해를 논할 것,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두 문단 이상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글은 한 문단에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구체화 해봅시다.

1. 제시문 1과 2의 관점 비교

1)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 (무엇에 대한 관점인지, 논제에 주제가 밝혀져 있지 않으면 주제를 학생이 찾아서 답안에 밝히려는 교수의 요구입니다.)

2) 주제에 대한 제시문 1의 관점

3) 주제에 대한 제시문 2의 관점

4) 두 관점의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2. 제시문 3에 대한 자신의 견해 논술

- 1) 두 관점 중 한 가지 선택(선택과 근거, 선택한 이유 서술)
- 2) 제시문 3 요약
- 3) 제시문 3에 대한 자신의 견해 서술

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개요를 만들어 봅시다. 각각 1백자 조금 안되게 글자수를 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1. 제시문 1과 2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서술
- 2. 주제에 대한 제시문 1의 관점 요약
- 3. 주제에 대한 제시문 2의 관점 요약
- 4. 두 관점의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문단 나누고)
- 5. 두 관점 중 한 가지 선택
- 6. 제시문 3 요약
- 7. 제시문 3에 대한 자신의 견해 서술

문제는 단 두 줄에 불과하지만 교수들이 여러분들 답안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어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답안에 없으면 감점이고 그러면 합격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논제 분석 예시 2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자료 1>과 <자료 2>에 담긴 현상과 의미를 설명하고 이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논술하시오.(800자) 성균관대 2009년

중간생략.....

기출문제 연습

아래 밑줄 친 논제들의 대강의 개요를 짜고,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글자수를 배분해 보세요. 나머지 작은 글씨의 논제들은 일단 그냥 참고만하세요. 나중에 그 대학에 지원할 경우 해당 대학의 논술 안내서를 보고 그 대학에 맞게 구체적으로 개요짜기를 공부할 문제들입니다.

최근 대다수 대학의 논술 시험 시간은 최소 1시간 40분(이화여대, 고려대)에서 보통 2시간입니다. 문제의 수는 2개에서 많으면 4개 정도입니다. 2시간 안에 모두 합해서 1천 5백자에서 2천자 사이의 글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학교마다 시험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제의 요구 사항의 차이를 의식하면서 분석해 봅시다.

1. 건국대학교 (2문제, 2시간. 상경계열만 수리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1] [가]에 나타난 개념을 참고하여, [나]의 진품구매자와 복제품구매자의 태도 변화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시오. (501~600자) 2012 수시인문

1. 제시문 가) 요약과 개념 정리 (150자)
2. 나) 요약(100자)
3. 진품 구매자의 태도 변화의 특징 서술(150자)
4. 복제품 구매자 태도 변화의 특징 서술(150자)

[문제 2] : [가]와 [다]의 관점에서 [라]에 그려진 인물들의 행동방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901~1,100자)

상경계열 2013 수시

문제 1 : [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나'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시오. (401~500자)

문제 2 : [다]를 바탕으로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2-1) 위 제시문 [다]의 가정 하에서 총 120대의 차량이 A부터 D까지 이동하기 위한 소요시간을 계산하고 풀이과정을 제시하시오. (20점)

2. 경희대학교 (3문제, 2시간. 사회계열 3번 수리논술)

〈논제Ⅰ〉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각각의 논지를 비교 논술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2012 모의

〈논제Ⅱ〉제시문 [다]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30점]

〈논제Ⅲ〉제시문 [마]가 함축하는 의미를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40점]

(참고) 사회계열

〈논제Ⅰ〉제시문 [가],[나],[다],[라]는 다양한 복지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마]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라]의 사례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유형의 특징을 논술하시오. [700자 이내, 40점]

〈논제Ⅱ〉제시문 [바]가 주장하는 인간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제시문[가]와[다]에서 각각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논술하시오. [600자 이내, 30점]

〈논제Ⅲ〉K대학교는 재학중인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학자금 지원, 체육시설 지원의 2가지 요소가 어우러진 학생복지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학생복지 프로그램은 2가지 요소의 자본 투입 정도에 따라서 플랜A와 플랜B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

연간 학자금 지원과 체육시설 지원에 투입 가능한 가용 자본은 한정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복지플랜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지프로그램의 효과로 인하여 학업생활에 열중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효과를 산출한 결과는 복지플랜A는 150, 복지플랜B는 180로 조사되었다.

복지플랜A와 복지플랜B를 가용 자본 한도에서 시행할 경우, 복지플랜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육효과가 최대가 되는 값과 이것의 도출과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 결과의 의미를 제시문 [마]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500자 이내, 30점]

3. 고려대학교 (2문제. 시험시간 100분, 언어논술 1문제, 수리논술 1문제)

제시문 1)에 근거하여 제시문 2)와 3)을 비교·분석하시오. (900자. 2012 수시 인문)

4. 서강대학교 (2문제, 2시간)

〈문제 1 : 40%, 800~1,000자〉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통합하여 요약·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와 [마]의 작품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2012 수시

〈문제 2 : 60%, 1,300~1,500자〉

제시문 [가], [나], [다], [라], [마] 각각을 요약하고, 개념의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이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타당성을 논하라.

5. 성균관대학교 (3~4 문제. 2시간, 답안의 글자 수 제한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한 문제당 600에서 700자 정도)

[문제 1] 아래의 <제시문 1>에서 <제시문 4>를 하나의 주제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012 모의

[문제 2]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보기 1)의 무력개입의 정당성을 평가하시오.

[문제 3] 아래 <표 1>과 <그림 1>, <그림 2>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현상이 무엇이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해석가능한지 상세히 밝히시오.

[문제 4] 아래 <표 2>와 <표 3>을 활용하여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6. 숙명여자대학교 (2문제, 2시간, 계열 공통 1 문제, 인문 1 문제)

1. 제시문 <가>의 관점을 토대로 제시문 <다>에 나타나는 입장의 대립을 <그림 2>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미국 남부 백인들의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0 ± 100자) 2012 모의

2. 제시문 <가>, <나>, <다> 중에서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옹호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두 제시문의 입장에 대해 각각 논평하시오. (1,000자±100자)

7. 서울 시립대학교 (3문제, 2시간, 영어 제시문 있음)

〈문항 1〉[나]의 내용을 요약한 뒤, 견해나 관점이 [나]와는 다른 것을 [가], [다], [라] 중에서 택일하여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2012 모의

〈문항 2〉[마]의 [도표 1]과 [도표 2]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나타낸 것이고, [도표 3]은 2009년과 2010년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도표들에서 2010년에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라]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시켜 논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문항 3〉‘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보다는 경쟁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한 뒤, [가] ~ [라]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8. 연세대학교 (2문제, 2시간)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012 수시 인문

문제 2) 제시문 (나)의 프랭크 길브레스는 벽돌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도 적용하여 채용담당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결합해서 어떻게 채용과정을 설계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정해진 원칙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뿐이다. (1,000자 안팎, 50점)

사회계열

〈문제 1〉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개별형 사이트에서 참여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곡을 다운로드한 횟수가 미공개 신곡들의 질을 반영한다는 가정 아래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9. 이화여자대학교 (3문제, 시험시간 100분, 인문계열 영어 제시문. 사회계열 수리
논술. 글자수가 따로 지정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답안지가 줄칸으로 나오면서 문제마
다 써야할 줄 분량이 정해져 나옵니다 1,2번 7백자 정도, 3번 8백자 정도)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두 글의 관점
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30점] 2013 수시 기출 인문

문제 2. 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관용’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30점]

문제 3. 다음 인용문의 ‘코끼리’에 대한 생각과 관련하여 제시문 [마]와 [바]의 타자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
하시오 40점

사회

문제 1. 제시문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에 대한 제시문 [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30점]

문제 2. 제시문 [다]와 [라]의 내용을 요약하고, ‘기억’에 대한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40
점]

문제 3. 도표 해석문제

(1) 중위 소득 기준 상위 10위권 국가들 중에서 지난 20년 동안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개선된 국가(즉,
평등 정도가 가장 높아진 국가)가 어디인지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2) OECD 국가들 사이의 중위 소득의 분포에 대해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하자. 각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간값 지표를 사용하는 것
의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10. 중앙대학교 (3문제, 2시간, 3번 수리 논술)

[문제 1] '고통의 기능' 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논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40점, 530자~550자) 2012 모의

[문제 2] 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바)의 논지를 비판하되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 (40점, 530자~550자)

[문제 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육사는 두 마리의 돌고래를 함께 오전과 오후에 1시간씩 훈련시켰다. 관찰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 (1) 돌고래 A는 오전 훈련보다 오후 훈련에서 2배 더 큰 훈련 효과가 나타났다.
- (2) 돌고래 B는 오후 훈련보다 오전 훈련에서 2배 더 큰 훈련 효과가 나타났다.
- (3) 돌고래 B는 돌고래 A보다 1.5배 더 큰 훈련 효과가 나타났다.
- (4) 훈련 효과는 훈련 시간에 비례했다.

사육사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현재의 훈련 방식 및 훈련 시간을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훈련의 변경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조건 1: 돌고래 A와 B의 하루당 총 훈련 효과는 서로 같아야 한다.
- 조건 2: 오전과 오후의 훈련 효과는 서로 같아야 한다.
- 조건 2: 돌고래 한 마리당 1번의 훈련 시간은 최대 2시간이다.

11. 한양대학교 (인문 1~2문제, 합해서 1400자, 상경계 2문제, 2번 수리, 2시간)

(가)와 (나)를 읽고,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도자 상(像)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시오.(1400자) 2012 모의 인문

- 〈조건〉
1. (가)와 (나)를 비교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
 2. 청소년 지도 문제를 예로 들며 일반적 논의로 나아갈 것.
 3.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설정하여 논의할 것.

〈문제1〉(가)를 참고하여 (나)에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을 지적하시오. (600자. 사회계열)

12. 한국외국어대학교 (3~4문제 영어제시문 2개, 2 시간)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가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논제를 찾아 우리말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2012 모의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를 활용하여 (자료 1)과 (자료 2)를 비교 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자료 3)의 관점에서 (자료 4)에 나타난 제도의 취지를 옹호하고 이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

13. 홍익대학교 (3 문제, 2시간 30분)

【문제 1】 제시문 (가)~(마)는 집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보여준다. 각 제시문의 시각을 요약하고 비교하시오. (1,000±100자) (문과대학 및 사범대학 인문계열 지원자에게는 그외 모집단위 지원자에 비해 2배의 배점) 2011 모의

【문제 2】 제시문 (아)의 주장에 입각하여 제시문 (바)와 (사)가 기술하고 있는 현상들을 분석하시오. (1,000±100자) (경영대학및 경제학부 지원자에게는 그 외 모집단위 지원자에 비해 2배의 배점)

【문제 3】 제시문 (카)의 입장에서 제시문 (자)와 (차)의 시각을 비교 분석하시오. (1,000±100자) (법과대학 지원자에게는 그 외 모집단위 지원자에 비해 2배의 배점)

14. 동국대학교 (3문제, 2시간)

[문제 1] 제시문 [나]는 한국 사회의 가족 기능의 과부하로 인한 ‘가족 피로’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탈가족화’ 추세를 구성하는 ‘이탈’, ‘축소’, ‘유보’와 같은 반응을 각각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기술하시오.(400자, 25점) 2013 모의

[문제 2] 제시문 [다][라][마]의 핵심적인 논지를 각각 제시하고, 그 논지들을 토대로 제시문 [가]의 현상을 설명하시오.(500자, 35점)

[문제 3] 제시문 [가]의 밑줄 친 “소박한 기억의 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시문 [나]~[러]마다의 주제 의식을 바탕으로 보충 설명하시오.(600자, 40점)

15.가톨릭대학교(2문제, 2시간)

문제 1. ㉠의 분석을 바탕으로 ㉡의 '똑같은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문장으로 설명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250~300자 / 20점) 2013 수시 공통

[문항 1] 제시문 (가)~(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 의무에 관한 글이다. (가)~(라)를 논지에 따라 두 묶음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눈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항 2]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대신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기부해야 하는지를 제시문의 논지에 근거해 논술하시오.

(문항 1과 문항 2 각각,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 각 40점) 가톨릭대 2013 수시 인문

16. 인하대학교 (언어논술 2문제, 도표 해석 1문제 2시간)

[문항 1 - A] (가)를 요약하라. (300±50자, 20점) 2012 모의

[문항 1 - B] 만약 자신이 결정권자라면 '자장면'과 '짜장면' 중 어느 것을 표준어로 택할 것인가? 이에 대해 <조건>에 따라 논술하라. (800±80자, 50점)

< 조 건 >

1. 두 가지 중 한쪽만 선택할 것.
2.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3. 자신의 선택을 지지할 만한 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 활용하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문제 3] 한 해에 걸쳐 매월 말 무작위로 실업 상태의 20세 이상 100인을 골라 구직 기간과 나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자료 (가)로 작성했다. 각 칸의 수치는 사람 수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상단 좌측 칸의 숫자 26은 100명의 20세 이상 실업자들 중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들이 평균 26명임을 나타낸다. 자료 (나)는 20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눠 보여준다.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갑, 을, 병, 정, 정의 주장들을 각각 뒷받침하라. (500±50자)

17. 서울대학교 2012 정시기출

※ 제시문은 미국의 경제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의 일부이고, 위 그림은 제시문 전반부의 주요 배경이 된 지역의 기후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과 그림을 참고하여 다음의 논제에 답하시오. (세 논제를 모두 합하여 2,200자 이내)

논제 1.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들의 원인을 분석하여 설명하시오.

논제 2. 주민들이 원거주지에서 살기 어렵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

논제 3. 제시문에 나타난 '이주'와 '잔류'의 행위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 제시문을 읽고 다음 세 논제에 답하시오. (세 논제를 모두 합하여 1,400 ± 200자)

논제 1. 세 그래프 1-a, 1-b, 1-c 의 의미를 기술하시오.

논제 2. 위의 제시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 B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그래프 2-a, 2-b, 2-c와 같다. 국가 B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이 그래프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시문에서 그림으로 보여준 변수 x, y, z 간의 가설적인 인과관계를 참고하여, 국가 A와 국가 B에 대한 분석 결과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논제 1. 나폴레옹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끊어져 있던 손금의 선을 칼로 그어 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제시문 (가)에 약술된 나폴레옹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하나를 들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나폴레옹이 언제, 어떤 마음으로, 어느 손금을 바꾸었는지 제시문 (나)의 내용을 토대로 상상하여 서술하시오. 또한 '손금'은 나폴레옹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서술하시오. (800 ± 200자)

논제 2. 우리는 주변에서 손금을 보는 것과 같은 행위를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 들고, 이 두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기술한 후, 인간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00 ± 200자)

[조건 1] '손금을 보는 것'과 유사한 행위들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사례를 들 것.

[조건 2] 두 가지 예 중 하나는 논제 1에서 서술한 손금에 대한 나폴레옹의 태도와 연관 지어 설명할 것.

[조건 3] 자신의 견해에 대한 예상 반론과 그것에 대한 반박을 포함시킬 것.

지금까지 논술 시험을 보는 여러 대학의 논술문제(논제)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논제 분석하는데 있어 주의 할 점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조감을 하며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고려대 시험문제입니다. 같은 해의 모의 논제와 실제 기출 논제입니다. ‘비교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는 두 논제의 전체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모의 논술을 보는 모든 대학이 실제 시험에서도 모의 논술과 거의 유사한 구조의 논제를 그대로 출제합니다. 물론 제시문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러니 따라서 주제도 달라지는 것이고 전혀 다른 내용의 답안이 요구될 수밖에 없지만 논제의 요구에 따른 답안의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시문 (2)와 (3)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2)와 (3)의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시문 (1)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고려대 2012 모의)

제시문 (1)과 (2)의 관점을 비교하고, 둘 중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여 제시문 (3)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고려대 2012 수시 오후 기출)

그러면 두 논제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모의 문제는 ‘비교하고 이에 근거하여 논술을 하라’는 요구이고 실제 시험은 ‘둘 중 하나의 관점에 입각해서 논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한 논제에서는 ‘근거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고 한 논제에서는 ‘하나의 관점에 입각해서’ 논하라고 했을까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쓴 두 문제의 논술 해설서를 종합해 보면 이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쓰라’고 할 경우에는 앞의 대립되는 두 관점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견해를 적당히 절충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관점을 선택해야지 두 관점을 적당히 절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경우 그래도 기출 논제의 둘 중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라는 논제의 문구가 의미가 분명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눈치를 챌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세한 논제 문구의 차이도 분명하게 알고 제시문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도출해야 좋은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의 논제에서 논술하라고 되어 있고 기출 논제에서는 논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런 논제의 요구 사항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요구에 따라 답안의 서술 방향도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다양한 요구 사항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대충 위에서 분석해 본 지난해 여러 대학의 논제의 요구 사항을 모은 겁니다.

요약하시오.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정리하시오.
분석하시오.
추론하시오.
평가하시오.
검토하시오.
비교하시오.
대비하시오.
비판하시오.
대안을 제시하시오.
논하시오.
논술하시오.

아니 뭐, 이렇게 ‘뭐 하시오’가 많지요? 사실은 이 외에도 더 다양한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위의 ‘뭐 하시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의 우문에 아주 좋은 현답을 했습니다. “예, ‘쓰시오’입니다. 아무튼 뭘 쓰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점입니다. 백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의 우문에 현답을 한 친구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 대학 교수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요구를 할까요. 공연히 논술 시험 보는 수험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표현의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논제의 서술어가 이렇게 다양한 것은 출제를 하는 교수의 출제 의도와 제시문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따라 답안의 서술 방향도 다 달라야 출제 교수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문이라는 것이 사용하는 단

어의 의미의 엄밀성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학술적인 글, 논문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가 분명하게 정의되고 그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학문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과하고 신나게 말싸움하다 소리가 높아지면 옆에서 누가 그러죠. ‘야 니덜이 이러는건 같은 단어를 놓고 서로 다른 의미로 말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만들 해.’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도 한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말하거나 알아 들으면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런데 과학적인 엄밀성을 기초로 하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어떻겠어요. 교수들은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엄밀성이 체질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소위 논리를 강조하는 논술 시험에 아무 단어나 마구잡이로 갖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논제의 요구가 교수의 출제의도와 여러분들이 써주기를 바라는 답안의 방향과 논술의 주제와 제시문의 내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논제의 요구의 구체적인 차이는 앞으로 독해력 공부를 마치고 여러 가지 쓰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익혀갈 겁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논제의 요구도 크게 분류를 하면 제시문의 내용을 필자의 주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줄여서 말해 보라는 ‘요약하시오’라는 요구, 주어진 관점이나 기준을 적용하여 다른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 해석해 보라는 ‘분석, 설명하라’는 요구와 제시문들에 나오는 복수의 주장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서 서술하라는 ‘비교하라’는 요구, 주어진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다른 제시문의 내용을 평가하거나 타당성을 검토 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보라는 ‘비판하시오, 검토하시오, 평가하시오’하는 요구,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거나 활용하여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보라는 ‘논하거나 논술하라’는 요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공부는 독해력 연습을 마치고 유형별 쓰기에서 공부합시다.

2부

활용 방법

2부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제시문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논술 담당 선생님들은 이미 어려운 제시문에 익숙하고 반면 학생들은 본인들이 독해력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무시하고 학생들도 소홀히 합니다. 학생들이 논제에서 벗어난 답안을 쓰고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제시문에 근거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 속에서 상상하고 배경지식에 의존해서 채점이 불가능한 글을 쓰는데 있습니다. 모든 글감은 제시문에 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읽어야합니다. 혼자서 한 문제씩 해나가는 과정에서 글 속에서 필자들의 자기주장에 대한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시간이 없으면 매 강의마다 두세 문제씩만 같이하고 숙제를 내주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제시문 독해의 중요성

대학입시 논술에서 제시문을 바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제 교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다음은 서강대학교 논술 안내서에 나온 출제 교수들이 제시문 독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다.

“무엇보다 글(논제와 제시문)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 소재와 뒷받침 소재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소재를 대하는 필자의 태도 혹은 그것과 관련한 필자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까지 사려 깊게 성찰하면서 읽는 연습이 요구된다.

제시문을 읽을 때 각 단락의 연관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단락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 단락, 대안이나 전망을 제시하는 단락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어떤 사태나 현상의 원인을 구명한 단락, 그 결과를 도출한 단락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질을 나타낸 단락, 현상을 드러낸 단락, 사실을 적은 단락, 주장을 드러낸 단락 등 각 제시문의 단락은 여러 양상을 보인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단락과 단락 사이,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의 연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논술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제자들이 그 연관관계를 심분 고려하면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은 곧 정확한 출제의도 파악과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시문에 들어 있는 사실들을 면밀하게 읽어냈다면,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사실들 혹은 주장들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과학적 맥락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하면서 제시문에 들어 있는 사실이나 주장을 비교, 대조하는 가운데 구조적이면서도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문의 소재와 주제, 필자의 처지와 태도, 구성과 맥락 등을 다채롭게 고려하면서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글을 읽는다면, 그 어떤 글이라도 이해하지 못할 게 없을 것이다.

논술의 제시문은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니며, 해독되지 않는 난해한 글들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수능 시험의 언어 영역이나 논술 시험의 제시문이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라면, 그 난해성을 원망하기 이전에

우선 자신의 글 읽기 습관을 반성해 보고 얼마나 그 기본에 충실하게 읽는가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서강대 논술 안내서에서)

그렇다. 그래서 배경지식은 필요 없다. 독해력이 중요하다.

배경 지식이 많아야 논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대입 논술은 지식의 양을 체크하는 시험이 아니다. 논제와 제시문을 주고 독해력과 분석력,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배경 지식을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제시문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읽어야 한다. 답안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정보는 제시문 속에 다 있다.

쓰기 전에 잘 읽어야 한다.

대입 논술은 쓰기 전에 잘 읽어야 하는 시험이다. 그런데 대다수 수험생들은 제시문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머리가 있으니까 중요하다 싶은 구절을 옮겨놓기는 한다. 하지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모른다. 이해하지 못하면 떨어진다. 그게 대입 논술이다.

어휘력,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고등학생들의 어휘력이 너무 빈곤하다. 논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룬다. 그런데 학생들은 말만 옮길 뿐 개념에 대해선 무관심하다. 그러니 제시문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리 없다. 어휘력이 있어야 독해력과 사고력이 생긴다. 어휘에 기대서 비로소 우리는 텍스트를 해석하고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어휘력이 없으니 사고력은 물론 독해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독해력은 훈련으로 기를 수 있다.

어휘력과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책과 친해야 한다. 어렸을 적부터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을 쌓아야 어휘력과 독해력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대입을 앞둔 수험생더러 책을 읽으라고 권할 수는 없다.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대입 논술에 필요한 독해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은 스스로 문제를 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독해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2부에서 하는 연습은 일단 하나의 제시문을 놓고 그 내용을 바로 이해하는 훈련입니다. 논술 시험에 나오는 여러 개의 제시문을 놓고 각 제시문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우선은 하나의 제시문을 놓고 그 안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을 읽는 사람의 주관의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주어진 관점에서 해석도 하고 다른 제시문과 비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제시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논술문제 전체를 놓고 제시문들 간의 논리적 관계나 연관관계를 찾는 연습은 기본적인 논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기본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지원 대학 기출문제 한 세트를 놓고 풀어보는 과정에서 배웁니다.

더불어 이런 제시문의 내용을 묻고 답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의미가 분명한 하나의 단문을 바르게 쓰는 연습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논술 답안에서 요구하는 문장은 명문이 아니라 의미가 분명한 단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의 객관식 문제나 단답형 문제만 풀어 오면서 문장을 쓰라고 하면 하나의 어구나 몇 개의 단어의 조합을 던져 놓고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장이란 주어와 술어가 제대로 갖추어진 하나의 의미가 담긴 마침표로 끝나는 글줄을 말하는 겁니다. 아래의 연습을 하면서 질문에 반드시 완성된 문장으로 답하는 습관을 길러야합니다.

04강

독해 연습 1 - 질문을 하면서 읽자

논술을 공부해도 실력이 잘 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시문 독해가 안 되는 것이다. 답안지를 채워 넣으려는 마음만 앞서서 제시문을 건성으로 읽는다.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답안지를 채워 넣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시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머리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글자만 옮겨 놓아서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독해는 언어를 통해 필자의 생각을 읽어내는 행위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언어 속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이다. 자신의 머리로 필자의 의도를 읽어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바를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한다.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것이 어려운 제시문을 만만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어려운 말이 나오면 피해가려고 하지 말자. 적당히 넘어가면 글의 흐름과 맥락을 놓친다. 그래서 제시문을 이해하지 못하니 답안을 써도 횡설수설한다. 한 문단 속에서 어느 것이 주제문이고 논지는 무엇인지 생각해라. 중요한 어휘나 문구가 나왔을 때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뭔지 물어야 한다. 정보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물어야 한다. 자꾸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읽는 시간도 단축된다. 연습해야 한다.

예시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우리 사회의 병증 중 하나로서 이기주의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전통 사회가 무너질 경우 개인의 출현과 더불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기심이다. 개인의 존재는 그 원초적인 행태가 바로 이기심의 주체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각자가 이기심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이를 위해 각자는 또한 상호 결합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기심은 원래 비사교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비사교성은 타인과 결합할 경우 ㉡'비사교적인 사교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기심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과 결합하는 것은 이기심의 자기 한정을 의미하며, 이기심을 보장하기 위해 이기심의 역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시민으로서의 덕성이 강조된다. 결국 이기심이 악덕이 아니라 덕성으로 간주되는 과정이 ㉢근대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물음 1) ㉠ '전통 사회'와 ㉢ '근대화'의 특징을 비교하시오.

(물음 2) ㉡ '비사교성의 사교성'의 의미를 추리해 보시오.

(물음 3) 글쓴이가 말하려는 논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물음 1) ㉠ '전통 사회'와 ㉢ '근대화'의 특징을 비교하시오.

|해설|

㉠ '전통 사회'와 ㉢ '근대화'의 특징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보자. 전통 사회가 무너질 경우 개인의 출현과 더불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기심이라고 했다. 이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전통 사회가 무너지기 전에는 개인과 이기심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것을 실마리로 하여 '전통 사회'와 '근대화'의 특징을 비교하면 된다.

|해답| ㉠ '전통 사회'는 공동체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개인과 이기심이 존재하지 않았던 반면, ㉢ '근대화'는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이기적인 개인을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로 부각시켰다.

(물음 2) ㉡ '비사교성의 사교성'의 의미를 추리해 보시오.

|해설| 문맥을 통해 ㉡ '비사교성의 사교성'의 의미를 추리해야 한다. 이기심은 원래 비사교적이라고 했다. 개인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경쟁심과 시기심을 불러온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사교성이 사교성을 가져온다. 자신의 이기심을 실현하

려면 타인과 결합해야 한다. 이익을 추구하려면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자기 이익만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타인이 자신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으므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까닭이다.

[해답] 비사교성은 개인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경쟁심과 시기심을 불러온다는 뜻이다. 그런 비사교성이 역설적으로 사교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으려면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하므로 스스로 이기심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물음 3) 글쓴이가 말하려는 논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해설] 글쓴이가 말하려고 하는 논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한다.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다. 글쓴이는 이기심이 악덕이 아니라 덕성으로 간주되는 과정이 근대화의 근간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이기심이 덕성으로 간주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스스로 이기심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글쓴이는 이기심 자체를 악덕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는 근대화는 개인을 이기심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바탕 위에서 이기심을 스스로 억제하여 타인과 공존할 줄 아는 태도를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 근대화의 핵심이라고 여긴다.

[해답] 근대화의 핵심은 개인을 이기심의 주체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기심을 자제함으로써 타인과 공존할 줄 아는 태도를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다.

연습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나간 두 세기 동안 기계적인 생활 수단이 전 세계적 규모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내면생활이 풍요로워지거나 예술 창작과 향유에 쓰여지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 지기는커녕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계화의 과정에 더욱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그 대부분이 내발적(內發的)인 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상상력은 기계에 비끄러매이거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도움 없이는 자체적 실재성을 보유했 아무런 힘도, 생존 능력도 갖지 못한다. ㉡현재 상황을 기술면에서 비교적 원시적이던 ㉢17세기의 상황과 비교해 보라. 그 당시 평범한 런던 시민들은 심지어 하인들을 뽑을 때에도 그가 저녁 시간에 벌어지는 가족 음악회에 한몫 낄 수 있을 만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고려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는, 야외에서 기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유롭게 노래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며, 휴대용 음향 기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면서 강변을 거니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주의: 모든 답은 가능한 단문으로, 완성된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지금하는 연습은 제시문을 바로 읽는 연습이기도 하지만 논술 답안의 기본이 되는 단문으로 뜻이 명료한 문장을 쓰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단편적인 어구나 메모형식으로 답안문장을 쓰면 안됩니다.

(물음 1) ㉠ '기계화의 과정에 더욱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추리해서 쓰시오

예시: 기계화의 과정에 깊이 빠져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 것이다.

(물음 2) ㉡와 ㉢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예시: a와 b의 핵심적인 차이란 ~ 말한다.

중간생략.....

05강

독해 연습 2 - 주제문을 찾자

글을 읽는 목적은 그 글의 논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논지는 근거와 짝을 이룬다. 논지는 글쓴이의 주장이고, 근거, 논거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말한다. 제시문을 읽을 때 우리는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나의 논술 문제에는 여러 개의 제시문들이 실려 있다. 문제를 풀려면 제시문들을 서로 비교하고 논리적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제시문 하나하나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하나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제시문도 있고 여러 문단으로 구성된 제시문도 있다. 어느 쪽이든 각 문단의 소주제부터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 여러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도 각 문단의 주제를 정확하게 찾아야 글 전체의 논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한 문단에는 여러 개의 문장과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주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결합된 것이 문단이다. 하나의 문단에는 대체로 주제를 전달하는 문장, 곧 주제문이 있다. 다른 문장들은 이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것들이다. 우선 걸으로 드러난 주제문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제문이 어느 것일까?'를 물으면서 글을 읽어 나가야 한다. 문장들 간의 논리 관계를 따짐으로써 드러나 있는 주제문을 찾아보자.

걸으로 드러난 주제문을 찾았다. 잘 알다시피 대개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주제문이 있다. 결국 이 주제문 하나를 찾기 위해 한 문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문장들을 읽은 셈이다. 주제문이 본래의 글 안에, 문맥 속에 놓여 있을 때에는 독자들에게 의미가 쉽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뒷받침 내용들을 빼놓고 주제문만 따로 옮겨 놓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주제문을 찾은 뒤에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정리해야 한다.

주제문이 걸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는 머리를 좀 더 써야 한다. 우선 걸으로 드러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한 걸음 더 나가 걸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핵심 의도를 추리해야 한다. 글쓴이가 정말 주장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주제문을 빨리 찾는 요령

1.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사 뒤에 있는 문장을 눈여겨보자. ‘그러므로’, ‘따라서’, ‘즉’, ‘결국’,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 앞의 말들은 결론짓거나 정리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하지만’을 주의하자. ‘그러나’가 한 단락의 앞부분에 나오면 그 문장이 주제문이다. 하지만 단락의 뒷부분에 나오면 문제를 제기해서 다음 단락으로 넘기려는 문장이다. ‘그러나’, ‘하지만’은 앞의 이야기와는 반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므로, 그 앞이든가 뒤 중 하나만 주제가 될 것이다.

3. 비유와 사례를 주목하자. 비록 처음 부분에 오더라도 비유와 사례를 든 문장은 주제문이 아니다. 비유를 들거나 사례를 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어떤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이 아니고 논설문이나 설명문인 이상 그 주제는 대개 그 단락 안에서(또는 그 다음 단락에서) 밝혀진다. 바로 그 부분이 주제이다. 그러니까 비유나 사례에 대한 글쓴이의 해석이 주제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 의문문이 앞에 나와 있으면 그에 대한 답을 찾자. 특히 처음 부분에 의문문이 등장하면 틀림없이 그렇다. 처음 부분에 던진 의문에 대해서 반드시 글쓴이가 답을 하게 되어 있다.

5. 분류의 방식은 모두 줄을 치자. 분류의 방식으로 쓰는 글, 그러니까 ‘첫째’, ‘둘째’를 따지는 글에선 바로 그 ‘첫째’, ‘둘째’라는 답을 유도한 문장이 주제문이다. 이러한 글은 눈에 금방 띄기 때문에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첫째’, ‘둘째’를 유도한 부분뿐만 아니라 바로 그 ‘첫째’, ‘둘째’의 내용까지 눈여겨보아야 한다.

6. 인용을 했으면 왜 인용을 했는지를 생각하자. 누가 뭐라고 말했다거나 어떤 주장을 했다는 것을 인용한 문장은 주제문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했을 때는 그 인용에 대한 글쓴이의 해석이 따라 붙는다. 인용한 부분에 대한 글쓴이의 해석이 나타나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다.

7. 변증법적 구성에서는 마지막에 주제가 있다. 변증법적 구성은 어떤 의견(정)과 그

것에 대한 반론(반), 그리고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친 의견(합)으로 도달하는 구성을 가리킨다. 이런 구성에서 주제문은 당연히 '합'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8. 글쓴이의 생각이나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 문장에 주목하자. 단순한 사실 설명이나 해설보다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다. 주로 논설문에서 그렇다. 논설문은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글이고, 그 주장을 남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쓰는 글이기 때문이다. 글쓴이의 생각이나 가치 판단이 담겨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

9.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 단락의 앞쪽에서 주제문이 보이지 않으면 마지막 문장이 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 정도가 주제문일 가능성이 많다. 문단은 대개 두괄식 아니면 미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따라서' 등의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 보면 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

중간생략.....

3부

활용 방법

논제를 통해서 교수들이 묻는 방식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맨 처음은 과연 네가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서적을 보고 그 책에 쓰여 있는 그대로 1. '필자가 말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겠니'입니다. 이것은 요약하라는 논제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으로 네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이해한 내용을 2. '어떤 조건에 맞추어(정해주는 시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니' 입니다. 이것은 분석하라거나 설명해보라는 논제로 물어봅니다. 다음은 객관적으로 이해한 두 개나 세 개의 3. 주장을 놓고 '서로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 비교해 볼 수 있겠니'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교하라고 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서로 객관적으로 비교 해본 주장 중에서 주어진 어떤 상황,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 '누구 주장이 더 타당할 것 같으냐'고 묻습니다. 아니면 5. 그 주장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보라'고 하거나 주어진 상황,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시문에서 언급된 것들을 기초로 해서 6. '네 생각을 한번 말해 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 선택을 하라고 하거나, 비판을 시키거나, 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교수들이 인문계열 언어 논술 문제를 만드는 기본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교수들이 물어보는 순서대로 공부합니다.

9강

요약하는 글쓰기

강의

요약은 한마디로 제시문의 논지(요지, 주제, 중심내용)을 중심으로 논제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대로 줄여서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논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 50~100자 정도로 짧게 요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300~500자 정도로 길게 요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제에서 직접 요약을 요구하지 않아도 제시문의 요지를 주장하는 문장과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문장으로 압축해서 답안에 반영해야 하므로, 요약은 모든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요약은 논술 쓰기의 기본입니다.

요약은 수험생 여러분이 필자의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필자의 입장입니다. 수험생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시문의 내용을 확대, 왜곡, 과장하거나 독후감, 평가하는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출제되는 논제의 유형을 봅시다.

1. 직접 요약할 것을 요구하는 논제

- (가)를 요약하시오. (10점, 250±25자) / 인하대
- <가>의 필자가 말하고자 한 것을 간추려 적으시오. (100자 ± 10자) 숙명여대

2. 논제 안에서 부분적으로 요약할 것을 요구하는 논제

- (가)의 논지를 요약하고, (가)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나)의 사례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800±50자) 상명대
- 다음 두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두 제시문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삼아 바람직한 대학 교육의 상(像)을 논술하시오. (400~500자) / 한양대 모의

3. 논제 안에서 간접적으로 요약할 것을 요구하는 논제

-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A>와 <제시문 B>에 나타난 현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500자 내외) / 한국외대 수시 2-2

직접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하는 순수 요약문제의 답안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 필자의 중심 주장(논지)를 찾아 맨 앞에 써주고
2. 다음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뒷받침 문장으로
3. 제시문의 핵심어휘를 사용하여 대학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에 맞추어 쓰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1. 제시문의 문단 전개 순서대로 각문단의 중심 내용을
2. 핵심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재구성하여 요구하는 글자 수에 맞게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앞의 방법으로 하면 글자 수 맞추기가 쉽습니다. 제시문 하나를 직접 요약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는 제시문 출처를 밝히면서 요약할 필요가 없습

니다. 그냥 제시문 필자의 입장에서 내용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논제 안에서 요약하거나 간접적으로 요약을 해야 할 경우는 제시문 출처를 밝히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시문 가)는 ~라고 주장한다.(말한다) 그 이유는(왜냐하면) ~하기 때문이다.”

즉, 제시문의 출처를 밝혀주면서(논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시문이 여러 개니까 지금 요약하는 내용은 제시문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밝혀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제시문의 필자가 주장하는 중심 내용을 말해주고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말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주장하는 문장 한 문장, 근거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쓰면 되는데 답안의 글자 수에 따라 더 써야 할 경우 뒷받침 문장을 글자 수에 맞추어 더 써주면 됩니다.

요약문에서 학생은 채점자에게

(1)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약 문제를 출제하는 까닭은 제시문의 논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채점자가 알 수 있도록 요약해야 합니다. 일단 글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겉으로 드러난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주제만 찾아도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 외에 숨겨진 의미를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문제나 쟁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글쓴이가 어떤 입장이나 관점을 택하고 있는지, 그런 입장이나 관점을 택한 논거와 전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2) 제시문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잘 이해했으면 이제 표현을 바꾸어 요약한다.

많은 학생들이 요약을 하면서 제시문에서 중요한 문장을 통째로 그대로 옮겨 와서 짜깁기를 합니다. 심지어 주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요약을 할 때에는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에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재구성해야 합니다. 핵심어나 핵심 어구는

그대로 살려 주되 수식어, 서술어는 유사한 뜻을 지닌 다른 낱말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문장 구조도 바꾸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3) 제시문의 내용에 자신의 생각이나 논평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약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견해나 정보이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시문의 논지를 왜곡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요약은 글쓴이의 견해에 동조를 하되 그것을 짧게 고쳐 쓰는 것입니다. 제시문을 전혀 읽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제시문의 내용이 무엇 인지를 간결하게 전달한다는 목표를 갖고 요약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시문의 논지를 왜곡해서도 안 되지만 제시문의 내용에 자신의 생각이나 논평을 덧붙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요약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원래의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봐야한다면 요약이 잘못된 겁니다. 요약문 자체로 모든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어야합니다. 요약문 자체가 의미가 통하는 하나의 완결된 글이다.

또 중요한 것은 제시문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는 중심 내용이 아니라 중심 내용(논지)를 독자에게 이해시키려는 뒷받침 내용이니 요약 내용에 포함 시키면 안 됩니다. 대신 구체적인 사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개념화해서 표현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실제 예시문제를 통해 배운 것을 확인해 봅시다.

예시

문제 1. 제시문 (나)를 요약하시오. (250± 25자) 인하대 2008 수시2

(나) 최초의 인류들은 간단한 몸짓이나 눈짓으로 서로 의사를 교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 언어는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도 의사를 교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리였다. 이 단계의 소리는 아직 자음과 모음의 분절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겠지만, 나름대로 상황에 맞는 의사전달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러한 소리는 점차 규칙성을 획득하면서 한 언어공동체의 말로 정형화된다.

이처럼 소리와 말은 의사소통의 공간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소리처럼 들려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거기까지 한 개인의 영역이 확대된 셈이다. 물론 소리는 허공에 외치고 나면, 곧 사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소리는 저장성이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즉각성,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다.

곧 사라져버리는 소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그림(이미지)이다.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의 동물 벽화는 허공에 흩어져버리고 마는 소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 경험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고 영속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동굴에 그려진 그림들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적 과정, 의식, 그리고 반복적인 신화와 설화를 담으면서 건축 . 회화 . 조각 . 음악 . 무용 . 문학 등의 발전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의 발전은 좀더 추상화된 기호인 문자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이제 시간의 일시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록의 문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인류의 의사소통 수단은 신체언어에서 소리와 말의 단계로, 그리고 그림과 문자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이 이처럼 단선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 멀티미디어의 발전은 소리, 말, 그림, 글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심지어는 글보다는 그림을, 그림보다는 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의 채팅은 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말에 가깝고, 이모티콘(emoticon)과 같은 보조 이미지 활용을 통해 더욱 재미있고 감성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다

해설

중간생략.....

실전

문제 1. 다음 제시문의 필자가 말하고자 한 것을 요약하시오. (100자 내외) 2008
숙명여대

사회의 두 가지 제도, 즉 사유재산제도와 결혼제도가 제정되고 나면 반드시 조건의 불평등이 수반된다. 만약 부모가 가난해서, 혹은 너무나 가족이 많아서 충분히 부양받을 수 없는 이들은, 자연의 불가피한 법칙 때문에 인생이라는 제비뽑기에서 짱을 뽑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부모로부터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또 사회가 그의 노동을 바라지 않을 경우, 그는 최소한의 식량을 얻을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실상 아무 곳에서도 할 일이 없다. 자연이 베푸는 대향연에서 그가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가 만약 다른 손님들의 동정을 받지 못하면, 자연의 여신은 퇴거를 명령하고 그 명령을 집행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손님들이 일어서서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머지않아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같은 대우를 요구하게 된다. 모든 방문객들에게 공급할 음식이 준비되었다고 알려지면 연회장은 수많은 불청객들로 채워진다. 향연의 조화와 질서는 무너지고 그때까지 구가하던 풍요는 결핍으로 바뀐다. 그리하여 손님들의 행복은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비참한 광경과, 소문난 잔치에서 음식을 찾지 못해 화가 치민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독촉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다. 손님들은 이 향연을 베푸는 위대한 여주인이 내린 최초의 엄명 - 모두에게 풍성한 음식을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회가 만원이 되면 신참자를 받아주지 말라는 명령 - 을 위배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팁 : 이런 문제는 단순히 요약하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한바, 의도하는 바를 요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 글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속뜻을 찾아 재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2.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 (300± 50자) 인하대 2011 모의 논술

(가) 한 문화 이론가는 ‘문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문화라는 개념은 정신과 교양의 축적이라는 원래의 좁은 의미로부터 벗어나 한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체계 및 생활 습관 전체에 확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동체가 인정하는 가치체계의 경계를 넘어서서 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든 문화적 실천을 문화로 인정하는 열린 체계로서의 문화 개념도 승인되고 있는 형편이다. 기성세대의 눈으로는 이상하게 보이는, 젊은이들의 요란한 복장, 피어싱, 이상한 노래들도 그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우리 주변에도 문화라는 말이 건잡을 수 없이 넓은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완전하게 고립된 문화, 완전하게 고정된 문화는 존재할 수 없다. 문화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내부의 요인에 의해 변동되기도 하고, 외부 문화의 유입, 혹은 과학 기술의 발명과 발견에 의해 새롭게 재편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불과 철의 발견, 증기기관과 컴퓨터의 발명 등은 인류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문자, 종교, 사회조직, 이념의 발명과 발견이 문화 변동에 끼친 영향력도 대단하였다. 그러나 문화 변동의 외부적 조건이라 할 만한 발명과 발견이 문화를 결정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발명과 발견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인간의 생활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기존의 문화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하나의 문화현상은 전체 문화체계 혹은 사회제도와 다양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문화 변동은 그러한 변화를 수용할만한 제반 사회적 조건이 성숙해 있을 때 일어난다. 특히, 문화 변동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개방적 태도가 갖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화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문화 변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일례로, 근거리 통신망이 갖춰지고 전자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도 직접 찾아가 결재를 받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전자문서에 의한 결제 시스템의 변화는 물론, 그 기업의 전반적인 기업 풍토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문화 변동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에 의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조선 말기 단발령이나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과 같이 직접적으로 문화 변동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변동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인도에서 펌프 공급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을 들 수 있다. 세계 보건 기구는 물이 귀한 인도에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하여 펌프를 대량으로 보급하였다. 펌프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여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

문에, 우물가는 자연스럽게 여자들의 사회적 회합의 장소가 되었다. 그런데 펌프를 통하여 물을 빨리 얻을 수 있게 되자 여인들이 물을 길기 위하여 지체하던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 결과 여인들 사이의 소문 통로가 사라지고, 의사소통 체계가 무너지는 예기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화 변동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변동 방향의 타당성에 관한 치밀한 분석과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 발췌, 수정

문제 3 (가)를 요약하라. (300±50자, 20점) 인하대 2013 모의

(가)

지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자유롭게 지식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규율에 의하여 정돈된 사실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와 규율은 교육의 근본적인 두 요소이다. 그런데 교육에서의 자유와 규율 간의 대립은 그리 예리한 것은 아니다. 학생의 정신은 발육 과정에 있는 생명 유기체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으로 구성된 교육의 목적은, 규율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유는 규율의 과제으로써 본인의 가능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 두 가지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와 규율이라는 두 원리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 발달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응하도록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교육의 리듬’은 이러한 자유와 규율을 발달 도상에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적응케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그 처음과 끝에 자유가 있지만 그 중간에 규율 단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색이다. 따라서 교육은 자유-규율-자유가 주기를 이루며 세 단계로 구성된다. 이때 최초의 자유 기간은 ‘로맨스 단계’, 중간의 규율 기간은 ‘정밀화의 단계’, 마지막의 자유 기간을 ‘일반화의 단계’라고 부를 수 있다

흥미가 빠진 정신 발달이란 있을 수 없다. 흥미야말로 주의와 이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다. 회초리를 사용하여 흥미를 유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고, 즐거운 활동을 자극제로 삼아 흥미를 갖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살아 있는 유기체가 적절한 자기 발달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즐거움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즐거움이야말로 생명의 약진을 위한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건전한 자극이다. 교육의 과정에서는 규율과 자유 모두가 필요하지만 로맨스 단계에서는 언제나 자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학생이 로맨스 단계로 달려가기 전에 규율을 강요했을 경우 반드시 장애가 나타난다. 로맨스를 구하는 모험심도 없이, 자발성도 무시된 채 습득한 것은 기껏해야 생기를 잃어버린 지식이며, 최악의 경우는 지식도 습득하지 못한 채 결국 관념을 경멸하게 되고 만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점차 사실과 이론의 토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될 것이다.

정밀화 단계에 이르면 로맨스는 뒷전으로 물러난다. 이 발달 단계에서는 올바른 방식과 잘못된 방식의 구별이 필요하며, 반드시 습득해야 할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 단계에서 로맨스가 죽은 것은 아니다. 균형 잡힌 지혜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로맨스는 여전히 필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요컨대, 자유와 규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룬 학습 실천의 장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에 가능한 한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과제 자체의 흥미에 강

조점을 두되 중간 단계에서는 배정된 과제의 착실한 학습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에는 일정 정도 무자비한 명확성이 본질적으로 필요하다. 성공적인 교사의 한 가지 비결은 학생이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두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의 비결은 속도에 있고, 속도의 비결은 집중력에 있다. 필요한 지식을 신속히 익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학생은 그 지식을 잊지 않게 된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화의 단계에 이르면 학생은 자신의 역할과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법칙에 대한 상세한 예증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학생들은 자발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줄 모험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연구에서 시작하여 연구로 끝나도록 이끌어야 한다. 결국 교육이란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인생의 직접적인 경험과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당면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발성을 환기시키는 것에서 시작하여 자발성을 고무하는 교육이 아니라면 그 교육은 실패작임에 틀림없다. 정밀화의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것에 대한 정밀한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 성장해가는 단계였다면 일반화의 단계는 여러 원칙을 적극적으로 응용하는 것을 앞세우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일반화 단계에 이르러서는 길들여진 상대적 수동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신이 배운 것을 활발하게 응용하는 자율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간생략.....

실전

문제 1. 아래 인용문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40점] 800자 내외 이화여대 2013 모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는 '사냥터지기'의 자세와 '정원사'의 마음가짐이 있다. 사냥터지기의 주요 임무는 관리하도록 맡겨진 땅을 인간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다. 이른바 땅의 자연적 균형, 즉 신이나 자연의 무한한 지혜의 체현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의 임무는 그런 자연의 균형이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밀렵꾼의 덫을 찾아내 못쓰게 하고 낫선 불법 사냥꾼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냥터지기의 일은 만사는 어설피게 손대야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사는 그렇지 않다. 그는 자기가 끊임없이 보살피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질서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정원사는 자기가 가꾸는 정원에 어떤 종류의 식물이 자라야 하고, 어떤 식물이 자라면 안 되는지 더 잘 안다. 그는 우선 머리에 바람직한 배치도를 마련한 다음에 정원을 그 이미지에 맞춘다. 그는 적합한 종류의 식물들을 성장하도록 하고, 그 외의 식물들, 즉 이제는 '잡초'라 개명된 것들은 뿌리를 뽑아 버림으로써 대지에 자신이 미리 생각해 놓은 디자인을 실행한다.

[마] 천하의 강산은 크고 고금의 세월은 유구하구나. 인간사의 가고 옴은 하나도 같지 않고 생물은 형형색색 만 가지로 같지가 않다. 산은 본래 하나이나 만 갈래로 흩어져 서로 다른 산이 생기고, 물은 만 줄기가 끝내 하나로 모인다지만 일만 굽이가 다르다. 하늘로 날고 강물에 잠긴 동식물의 기이한 형상도 그 같고 다름이 조화의 자취가 아닌 것이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 음양과 오행의 정기를 받아 만물보다 사랑스럽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다름, 능력의 높고 낮음, 식견의 크고 작음, 오래 사는 자와 요절하는 자, 가난한 자와 부귀한 자로 나뉘어 서로 같지가 않다. 때를 얻어 임금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끼쳐 이름이 역사에 남는 사람도 있고, 시대를 잘못 만나 귀한 구슬을 지닌 채로 초목과 함께 썩은 사람도 있다.

이중에 여자는 발이 규방(閨房)의 문을 나가지 못하고 오직 술과 음식 만드는 일만을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 했으나, 옛날의 성현이었던 문왕과 무왕, 공자와 맹자의 어머니에게는 모두 성스런 덕이 있었고 또 성현을 낳아 이름이 만세에 드러났다. 이렇게 빛나는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찌 여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없겠는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하면 규중에 깊숙이 묻혀 그 총명함과 식견을 넓힐 수 없고 끝내는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나는 본래 강원도 원주 사람으로 스스로를 금원(錦園)이라 호를 지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나를 어여뻐 여겨 글을 가르쳐주시니 몇 년이 되지 않아 경서와 역사서를 약간 이나마 알게 되었고 고금의 문장(文章)을 본받고 싶어져서 이따금 흥이 날 때마다 꽃과 달을 읊조리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태어날 때 금수(禽獸)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이 다행스럽고, 오랑캐 땅에 태어나지 않고 문명(文明)한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다행스럽다. 그러나 남자가 되지 않고 여자가 된 것은 불행하고 부귀한 집에 태어나지 않고 한미한 가문에 태어날 것은 불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미 나를 낳았으니 어찌 홀로 요산요수(樂山樂水)하여 보고 듣는 것을 넓힐 수 없겠는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집안 깊숙이 문을 닫아걸고 사는 것이 옳겠는가? 한미한 집에 태어났으니 형편을 좇아 분수껏 살아가는 것이 옳겠는가? 아아! 내 뜻은 결정되었다.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기수(沂水)에서 목욕하며 바람을 쐬고 글을 읊었던 증점(曾點)을 본받는다면 성현들께서도 또한 마땅히 장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마음을 굳게 먹고 부모님께 여러 번 간청하니 한참 뒤에 내 뜻을 허락해주셨다. 이에 가슴이 툭 트이는 것이 마치 매가 새장에서 나와 곧장 하늘로 날아가는 듯하고 천리마가 재갈에서 풀려나 천리를 치닫는 듯했다. 그 날로 당장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짐을 꾸려 먼저 충청도의 네 고을로 향해 길을 떠났다.

[바] 수용소에서 일할 때에도 우리는 종종 옆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눈을 돌려 바바리아 숲의 아름다운 큰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뒤리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그 숲은 우리가 대규모 비밀 군수품 제조공장을 짓는데 동원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서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는 점호장소로 가서 해질녘의 멋진 풍경을 보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구름 사이로 새파란 빛과 핏빛 하늘의 조화가 신비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진흙 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반사된 하늘빛의 조화는 칙칙한 분위기의 초라한 임시막사와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감동의 물결이 잠시 요동친 후 누군가 외쳤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나니!”

어느 날 우리는 참호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잿빛 새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도 잿빛이었고, 창백한 새벽빛에 반사되는 눈도 잿빛이었다. 동료가 걸치고 있는 녀마 같은 옷도 잿빛이었고, 얼굴도 잿빛이었다. 나는 또 다시 아내와 침묵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당시 나는 내 고통에 대한, 그리고 내가 서서히 죽어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곧 닥쳐올 절망적인 죽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영혼이 사방을 뒤덮고 있는 음울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것이 절망적이고 의미 없는

세계를 뛰어넘는 것을 느꼈으며,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어디선가 “그렇다”라고 하는 활기찬 대답 소리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수평선 저 멀리에 그림처럼 서 있던 농가에 불이 들어왔다. 바바리아의 동트는 새벽의 초라한 잿빛을 뚫고 불이 켜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나니.”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면서 서 있었다. 감시병이 지나가면서 욕을 했고, 나는 또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자 점점 더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으며, 그녀는 정말로 내 곁에 있었다. 그녀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손을 뻗어서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중간생략

11강

비교하는 글쓰기

강의

비교 분석을 요구하는 논제는 한 제시문 안에서 또는 복수의 제시문들 사이에서 논의의 대상을 비교하여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비교 대상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고, 차이점에만 주목해서 서술해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학의 경우 공통점만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학입시 논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자 가장 까다로운 요구이기도 합니다. 연고대의 경우 거의 매년 두 제시문을 비교하러거나 제시문 세 개를 비교하라는 양자 비교, 3자 비교 문제가 단골로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 대상간의 의미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핵심어휘로 표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제에 따라 비교의 기준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비교 기준이나 주제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비교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점을 묻는 논제에서도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차이점을 묻는 문제에서 공통점은 무시하고 차이점만 찾으려고 해서는 좋은 답안을 쓰기 힘듭니다. 공통점을 먼저 생각해야

만 '의미 있는 기준'을 찾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이점을 묻는 논제의 답안에 핵심적인 공통점을 언급해 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1. 직접 비교할 것을 요구하는 논제(두 가지 대상의 비교)
 - [라]와 [마]에서 개인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이화여대
 - [가]와 아래 제시문에서 개인의 이익을 바라보는 논지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이화여대 모의

2. 직접 비교할 것을 요구하는 논제(세 가지 이상의 비교)
 -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1000자 내외, 50점) 연세대
 - '창조'와 '파괴'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800자 내외, 30점) 연세대

3. 요약을 하고 비교 할 것을 요구하는 논제
 - <제시문>의 핵심어(keyword)를 중심으로 <자료 1>의 (A)와 (B)에 나타난 논점을 제시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 한국외대 수시2-1
 - 다음 제시문 [가] [나]의 공통 논제를 밝히고 그 논지를 비교 대조하라. (800~1,000자, 40% 배점) 서강대 2013 모의

4. 비교하고 논술할 것을 요구하는 논제
 - 제시문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얼룩이'와 '초록이'의 견해를 비교하고,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자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50점 / 1000자±100자) 고려대 수시2
 - [가]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에 그려진 '나'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901~1,100자) 2013 건국대 수시

비교하라는 답안의 작성 요령을 확인해 봅시다.

2가지를 비교하라고 할 경우입니다.

1. 논제에 제시된 비교의 기준을 확인한다.
2. 논제의 기준을 중심으로 [가] 제시문을 요약한다.
3. [가] 제시문의 요약과 대응이 되도록 다음 제시문을 요약한다.
4. 논제에 제시된 기준과 관련한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5. 전체 주제와의 연관성 제시하며 제시문 내용을 토대로 한 구체적 비교(차이점 중심)를 하고 다음 비교의 심층적 의미 제시의 순으로 답안을 완성한다.

3가지 이상의 내용을 서로 비교 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의 해결법

대입 논술 문제에는 대개 2개 이상의 복수의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제시문들은 논술의 주제에 대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제시문은 원리, 이론을 제시하고, 또 문제 상황과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 주기도 하고, 어떤 제시문은 쟁점에 대한 서로 대조되는 견해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 세 가지 이상의 여러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해서 서술해주면 바로 비교하시오 라는 논제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 됩니다. (실제 연습은 나중에 한 세트 로 구성되어 있는 각 대학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합니다.)

실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합시다.

예시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파이드로스야, 문자에는 나쁜 점이 있고 그런 면에서 그림과 비슷하단다. 그림이 그려 낸 화상들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네가 그것들에게 무엇을 묻는다면 아마 점잖게 침묵하기만 할 거야. 문자도 그와 똑같아. 넌 문자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네게 말을 건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네가 무엇을 정말 배울 요량으로 그것이 말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틀림없이 그것들은 늘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내용만을 줄 뿐이야. 그리고 말은 한번 씩어지고 나면 장소를 불문하고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에게나 그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은 자에게나 이리저리 마구 돌아다니게 되고, 결국 그 말이 애당초 어떤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중간생략.....

실전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에서 개인의 이익을 바라보는 논지를 비교하시오. (400자 내외) 2009 이화여대 모의

[가] 인간은 어떤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놓여있지만, 그가 전 생애를 다하여도 겨우 몇몇 사람들의 우정을 얻는 것마저도 어렵다. 인간은 거의 항상 형제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단순히 그들의 자비심에 의해서 도움을 얻고자 기대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보다는 상대방의 이기심을 자극해서 자기의 이익이 되게 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또한 상대방의 이익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들은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필요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본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근로 활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그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가지도록 노력한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수입을 최대로 하려고 노력한 것이 된다. 물론 그는 사회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려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느 정도 사회 공공의 이익을 촉진했는지조차 모른다. 그가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가지도록 운영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 경우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사회에 나쁜 것은 아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 한 마을에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10가구가 있었고 목초지에서 양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각 집에서는 10마리의 양을 키웠으며 그 목초지는 양 100마리를 키우기에 적당한 크기였다. 어느 날 한 집에서 남들 모르게 양을 한 마리 더 키웠다. 그 집은 한 마리의 양을 더 키움으로써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좋은 목초지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려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목초지가 황폐화된 이유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집집마다 남들 모르게 양을 한두 마리 더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양들이 풀뿌리까지 먹어버렸고 목초지는 황폐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동에 관한 시각의 차이를 밝히시오.[15점]
이화여대 2010

[가]

페르세스여,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여, 그대는 늘 내 충고를 명심하고 일하시라.
기아가 그대를 싫어하고 고운 화관을 쓴 정숙한 데메테르 여신이 그대를 사랑하여
그대의 공간을 식량으로 가득 채우도록 말이오!

왜냐하면 기아는 게으름뱅이의 충실한 동반자이기 때문이오.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신들도 인간들도 싫어하는 법이오.

그는 빈둥빈둥 놀며 꿀벌들의 노고를 먹여치우는 침(針)이 없는 수벌들과 기질이 같
소.

그대는 일을 사랑하되 시의(時宜)를 얻도록 하시라.

그러면 그대의 공간들은 철철이 식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오.

사람들이 양떼를 많이 갖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일 덕택이오.

그리고 일하는 자는 불사신들께 훨씬 더 사랑스런 법이오.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그들은 게으름뱅이들을 싫어하니깐요.)

일은 수치가 아니오. 일하지 않는 것이 수치요.

그대가 일하면 게으름뱅이는 곧 그대가 부자가 되는 것을 시기할 것이오.

하나 부에는 위엄과 명망이 따르는 법이오.

그대의 운수가 어떻든 간에 일한다는 것은 더 바람직한 것이오.

만약 그대가 그대의 어리석은 마음을 남의 재물로부터 일로 돌려 살림을 보살핀다면
말이오.

[나]

카알라일은 말했지!

‘할 일을 얻은 사람은

또 다른 행복을 찾지 않는다’고.

그러나 공장의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네.

찰스 데바스는 말했지.

‘많은 사람들은

기계의 핸들을 움직이고 있을 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독창성도 필요 없는
사물이 되고 말았어.
노동자들은
일을 하기 전이나 후나
전혀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네.’

문제 3. (1)의 내용을 바탕으로 (2)와 (3)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75점) (비교하시오 까지만 쓰시오. 400자 내외 2013 고려대 모의)

(1) 19세기 근대 역사주의를 주창한 랑케(Ranke)는 이전의 자의적인 역사 연구와 서술을 부정하고 엄격한 사료 비판에 근거한 객관적 서술을 지향하여 역사학을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리려고 하였다. 그는 17-18세기를 통해 발전되어 온 사료 비판의 방법을 종합하여 본격적인 역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는 고문서 자료 등 1차 사료를 더 신뢰하면서 이를 면밀히 분석하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눈으로 당시를 바라볼 수 있다고 믿었다. 즉 과거에 '사실(fact)'이 엄연히 존재하였으므로, 역사가는 그것이 기록된 문서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상황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랑케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간극을 사료 비판과 직관적 이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역사가는 사료의 언어를 감정이입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과거를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콜링우드(Collingwood)는 역사적 사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탐구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과학이라면 역사는 이러한 과학과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과거는 역사가에 의해 구성되고 그 의미 또한 역사가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이다. 과거는 과거의 시점에서 볼 때 실존적이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관념적일 뿐이다. 역사가가 알 수 있는 과거는 사료를 통한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역사가는 과거에 대해 매개적이고, 추정적이며, 간접적인 인식 이상을 가질 수 없다. 이는 다시 말해 역사적 사실은 항상 오염되어 있어서 과학적 객관성을 획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역사적 의미 역시 그 과거에 대해 제한된 인식을 가진 역사가에 의해서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적 사실이 순수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음은 자명해진다. 명백한 증거를 기초로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파악되는 역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는 역사가의 의식 속에서 재구성될 뿐이다.

카(E. H. Carr)에 따르면 역사가는 '가위와 풀의 역사', 다시 말해 단순히 과거 사실을 기계적으로 편집하는 역사를 쓰거나, 현재의 목적을 위해 과거 사실을 주관적으로 왜곡하는 오류를 모두 피해야 한다.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 간의 관계에서 역사가들은 외견상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역사가는 역사를 사실의 객관적 편집으로 보아 사실이 해석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이론과, 역사를 역사가의 주관적 마음의 산물이라고 보아 역사적 사실을 확립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역사가는 무게중심을 과거에 두는 역사관과 현재에 두는 역사관 사이에서 위험하게 항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보기보다는 덜 위태롭다. 역사가는 사실 앞에 비천하게 무릎 꿇는 노예도 아니고, 사실을 지배하는 폭군적인 주인도 아니다.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관계는 평등하다. 즉 주고받는 관계이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이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2) 문학은 경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고 재창조한다. 문학은 신문기사나 보고서, 실록 등과 같은 기록물들과 다르다. 문학은 상상의 산물이므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허구는 독자에게 사실처럼 여겨진다.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현실 속에 살아 있을 것처럼 보이고 소설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질 것 같기도 하다. 디킨스(Dickens)의 소설들은 연재 당시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 독자들은 디킨스 소설의 주인공을 실존 인물로 착각할 정도였고 주인공의 운명을 걱정한 나머지 디킨스에게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골동품 상점」의 ‘어린 넬’이 죽는 연재분이 배포되었을 때는 비록 가공의 인물이 죽었음에도 전 영국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가정과 일터와 거리에서 사람들은 해당 호를 손에 든 채 눈물을 흘렸다. 문학의 역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드물지 않다. 그 사례들은 문학의 허구가 현실 세계에 대해 얼마나 큰 사실적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문학이 경험 현실에서 취한 소재를 두고서 전개하는 상상은 결코 허황되지 않아서 그 상상이 창조한 허구는 우리의 감수성에 구체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문학은 허구이긴 하지만 그 허구 속에는 사실 이상의 진실이 담겨있고 그 진실의 호소력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그 감동이 동일한 작품을 읽은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문학은 소통의 방법으로 기능한다. 우리는 문학이 전개하는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대면하게 된다.

(3) 언론 보도의 객관성은 언론 윤리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이다. 언론의 객관성은 정확하고 선입견이 배제된 보도를 통해 보장된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자는 평가와 판단을 유보하고 오로지 일어난 사실 그 자체만을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보도의 절대적 객관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주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버거(Burger)와 루크만(Luckmann)은 해석 공동체의 존재가 언론의 객관성이라는 개념 혹은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주관적인 의미가 객관적인 사실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한 사회의 독자적이고 독특한 실재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그것이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해석 공동체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성의 개념만을 강조할 경우, 언론은 특수한 사회적 실재 혹은 사실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과장되게 보도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즉 실재의 재현 과

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을 한 조선족 여성들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우 초기에는 그들을 ‘우리 농촌을 구할 수 있는 동포 처녀들’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 추구에 필요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 국제결혼을 이용하는 자들’이라거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결혼중개업자들의 공모자들’로 그려졌다. 물론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적인 동기에서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여성들에 대해 물질적 이해를 좇는 타산적인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보도 방식은 그들의 다양한 결혼 동기들을 경제적 신분 상승을 위한 것으로 단순화시킨다. 1997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했던 법이 결혼 후 최소 2년이 경과하는 조건으로 개정되었다. 언론보도가 이러한 법 개정의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 4. 제시문 (2)와 (3)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2)와 (3)의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시문 (1)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50점) 고려대 2012 모의 (비교하고까지만 하시오. 400자 내외)

(2)

가.

맹자가 말하였다. “내 노인을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 미치고 내 아이를 사랑하여 남의 아이에게 이룬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가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처자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 이르고 그럼으로써 집과 나라가 다스려진다.’라고 하였으니, 이 마음을 가져다가 저기에 보탬 뿐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확장시키면 천하를 보존하기에 충분하고, 은혜를 확장시키지 못하면 처자도 보호할 수 없다.”

나.

어와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할까
어와 저 아저씨야 옷 없이 어찌할까
힘든 일 다 말하려무나 돌보고자 하노라

오늘도 다 새었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 좀 매어 주마
올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서럽다 하겠거늘 짐조차 지실까

다.

사람들은 핵가족으로부터 국가적인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광범위해지는 연대의 동심원 체계에 속해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먼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물의 질서를 존중할 책임과 의무를 덜 느끼게 된다. 그러나 ‘내 것’과 ‘내 것이 아님’ 그리고 ‘다른 사람 것’과 ‘다른 사람 것이 아님’을 지나치게 구별하게 되면 공동체에서는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우리의 환경에 다가간다. 나는 어느 누군가의 딸 또는 아들이며, 또 다른 누군가의 삼촌 또는 사촌이다. 나는 또한 이 도시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러저러한 집단의 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같은 공동체에 속한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어야 한다.

개인들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연대를 맺기도 하지만 또한 동의와 상호부조를 통해서 연대 제도에 참여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발전과 연관된 이러한 원리는 19세기 말에 사회 보험을 탄생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리 모두는 실제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3) 오늘날 선진국에서 정부 지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복지이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대규모 정부 지출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공적 연금이다. 공적 연금은 정부가 노인들에게 매달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매달 소득의 일정액을 연금 보험료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강제 저축이다.

공적 연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 개입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개인들이 자신에게 해로운 선택을 할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현재를 즐기는 데 자신의 소득을 모두 쓰는 대가로 궁핍한 노년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것을 막을 것인가? 우리는 대화를 통해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설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의 결정을 바꾸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을까?

공적 연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일 이 제도가 없다면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궁핍한 노인이 고통 받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 보조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이는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사회가 부담을 떠안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제적인 연금 가입은 그 사람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만약 공적 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노령 인구의 90%가 사회에 부담이 된다면 이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오직 1%만이 공공의 부담이 된다면 전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왜 1%의 사람들이 사회에 초래하는 부담을 막기 위하여 99%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자발적인 노후 대비가 어려운 소수에게는 어느 정도 국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다수에게는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다수가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면 공적 연금 제도는 별 이득도 없이 너무나 큰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우리의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했으며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비교하기 종합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행복에는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더라도 음식과 옷과 집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무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는 분명하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많은 돈, 성공이나 명예, 완전한 육체, 심지어 완벽한 배우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마음이라는 도구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행복에 이를 수가 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중략)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구분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다양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예를 들어 미움, 시기, 분노 같은 것은 해롭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행복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여깁니다.” - 달라이 라마와 커틀러,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에서

(나) 사드의 작품에서 뚜렷하게 표명되고 있는 행복에 관한 개인주의는 사회의 윤리 밖에 놓여 있다. 사드가 말하는 행복과 일치하는 감각적 만족의 무절제한 추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생한 느낌을 받기 원한다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비윤리적 명령이다. 개인에게 내려지는 이 비윤리적 명령은 일종의 광기이다. 이는 타인의 근심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나아가 타인의 근심을 단순히 쾌락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개인주의를 표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포쉐, 『행복의 역사』에서

(다) 인간이 사회를 지배하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목적에 경제기구를 종속시킬 때에만, 또한 인간이 적극적으로 사회과정에 참여할 때에만, 지금 인간을 절망-고립감과 무력감-으로 몰아넣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오늘날 인간이 고민하는 것은 빈곤보다 오히려 자신이 큰 기계의 톱니바퀴, 즉 자동인형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공허하게 되어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1. 제시문 가, 나, 다가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2.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어휘들을 찾아 표시하십시오.

3. 제시문 가, 나, 다의 중심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가)

나)

다)

기출문제

[문제 1] 위 지문들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글들이다. 글 (가)에 나타난 달라이 라마의 생각과 글 (나)에서 설명된 사드의 생각을 비교하십시오.(180~200자, 40%)

[문제 2] 글 (다)의 입장에서, 글 (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복에 대해, 주어진 지문들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십시오.(280~300자, 60%)

12강

비판하는 글쓰기

중간생략

13강

대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쓰기

중간생략

14강

논술하는 글쓰기

부록

도표 자료 해석, 논리, 수리 문제 해결하기

1. 도표 해석 문제

강의

최근의 대입 논술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분리되는 추세가 생기면서 사회계열에서 제시문으로 구체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자료를 도표나 그림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 주어진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과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주어지는 자료는 사회 현상이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유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주어진 도표와 글로 된 제시문을 연관지어 해석을 하는 요령이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일차적으로 수험생들이 도표를 보고 그것을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으로 다른 제시문과 연관지어 그 도표가 나타내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평가한다. 도표나 자료도 제시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약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의 단위와 구분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체적인 수치의 증감과 그 정도를 파악하고 표에 나타난 전체적인 추세와 특별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기출 논제 유형

1. [연세대 수시 2] 제시문 (라)의 표에서 텔레비전, 일간신문, 온라인 매체 사이에 나타난 차이를 제시문 (가)에서 설명된 설득의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분석하시오.(1,000자 내외로 쓰시오. 40점) /

2. [성균관대 수시 2(오전)] [문제 2] 아래 자료 중 하나를 활용해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쪽을 비판하시오. [문제 3] 아래 표가 보여주는 현상을 [문제 1]의 제시문과 연관지워 설명하시오.

3. [성균관대 수시 2(오후)] [문제 3] 아래의 <도표>는 [문제 1]의 두 입장과 모두 연관될 수 있다. <도표>가 어떤 점에서 각각의 입장과 연관되는지 입장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4. [한양대 수시 2(상경)] <가>에 근거하여 남녀 마라톤 기록이 <나>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답안 작성 요령

먼저 도표도 제시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래서 도표도 먼저 요약해 주어야 합니다. 도표의 요약은 있는 그대로 도표를 설명하는 겁니다. 글자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도표 안의 대표적인 숫자를 들어 설명해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도표를 해석해 주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 표를 설명하는 것과 해석을 해서 표가 함축하고 있는 숨은 뜻을 밝히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즉, 앞의 도표 설명은 제시문을 필자 입장에서 요약하는 거라면 도표의 해석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제시문의 요약한 내용을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과 같다. 도표 설명은 요약, 도표 해석은 제시문 해석과 같다고 생각하자.

답안의 문장구조는 이렇다.

이 표는 ~한 표로 ~한 추세를 보인다.<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표는 ~ 의미가 있다.<해석입니다>

2.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논리 추론 문제

예시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이화여대 2013 모의 사회

최근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기사의 일부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청년층의 시간제 근로자수가 43만9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시간제 근로자는 통상 편의점이나 식당, 주점, 커피전문점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청년층의 시간제 근로자 수 급증세는 젊은 세대의 저임금화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된 통계 자료가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는 2004년과 2011년의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수와 시간제근로자의 수, 또한 각 지표의 비중 및 증감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표]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 (단위: 천 명)

	2004년			2011년				
	임금근로자 A	시간제 근로자 B	비중 B/A	임금근 로자 C	증감 (C-A)/ A	시간제 근로자 D	증감 (D-B)/ B	비중 D/C
①계	14,584	1,072	7.4%	17,510	20.1%	1,702	58.8%	9.7%
②15-19세	233	81	34.8%	229	-1.7%	121	49.4%	52.8%
비중②/①	1.6%	7.6%		1.3%		7.1%		
③20-29세	3,847	219	5.7%	3,427	-10.9%	318	45.2%	9.3%
비중③/①	26.4%	20.4%		19.6%		18.7%		
④30-39세	4,446	266	6.0%	4,789	7.7%	256	-3.8%	5.3%
비중④/①	30.5%	24.8%		27.4%		15.0%		
⑤40-49세	3,581	243	6.8%	4,647	29.8%	336	38.3%	7.2%
비중⑤/①	24.6%	12.4%		26.5%		19.7%		
⑥50-59세	1,722	133	7.7%	3,058	77.6%	283	112.8%	9.3%
비중⑥/①	11.8%	12.4%		17.5%		16.6%		
⑦60세 이상	756	130	17.2%	1,360	79.9%	389	199.2%	28.6%
비중⑦/①	5.2%	12.1%		7.8%		22.9%		

[청년층 상세]								
②+③15-29세 비중(②+③)/①	4,080 28.0%	300 28.0%	7.4%	3,655 20.9%	-10.4 %	439 25.8%	46.3 %	12.0%
⑧20-24세 비중⑧/①	1,548 10.6%	138 12.9%	8.9%	1,110 6.3%	-28.3 %	(-) (-)		
⑨25-29세 비중⑨/①	2,299 15.8%	81 7.6%	3.5%	2,317 13.2%	0.8%	5.9%		

(1) [표]의 아랫부분에는 기사에서 '청년층'이라고 지칭한 15-29세 집단 중 20-24세와 25-29세 소집단의 상세 자료가 일부 나와 있다. [표]에 (ㄱ)과 (ㄴ)으로 표시된 부분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하십시오. [15점]

(2) 2004~2011년 사이 청년층(15-29세) 시간제 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청년층의 비중은 오히려 2.2%포인트(28.0% → 25.8%) 줄어들었다. 이 비중 감소는 크게 외부적 요인(청년층이 아닌 다른 연령대에서 나타난 변화)과 내부적 요인(청년층이 속한 각 소집단들에서 나타난 변화)으로 나누어 설명해볼 수 있다.

각 연령대 및 청년층 내 소집단이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2004~2011년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를 검토하여, (i) 외부적 요인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연령대 집단과 (ii) 내부적 요인에 가장 크게 기여한 청년층 내부 소집단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15점]